

# 의학정보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이 제 환

### 1.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연말 <국가전자도서관구축기본계획>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디지털 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보시대를 맞아 국가차원의 대처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관련 정보유통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모아놓은 자료였다. 여기서의 정보유통기관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의회도서관, 법원도서관, KINITI, KORDIC 그리고 KRIC이 포함되어 있었다.<sup>1)</sup> 以前에 몇 번인가 국가 정보유통체계에 대한 세미나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곤 했었지만, 이 보고서에 참여한 기관 중에도 의학분야의 정보유통기관은 빠져 있었다. 정보선진국의 경우 의학도서관이나 의학정보시스템은 국가차원의 정보유통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기능해 왔다. 특히,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도서관 업무 뿐만 아니라 정보서비스의 자동화를 선도하는 입장에 서왔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의 의학정보유통체계는 그 구조와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국가차원의 의학도서관은 물론 변변한 의학정보센터 하나 없는 의학도서관계의 현실은 그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며칠동안 관련 문헌을 뒤지며 국내 의학정보의 관리 및 유통 현황을 학습하였다. 그러나, 나의 짧은 식견인지는 몰라도 의학정보의 유통을 전담하는 전국규모의 기관을 찾는다는 실패하였다. 단, KOSEF가 지원하는 숙명여대의 <의약품연구정보센터>와 전남대의 <보건연구정보센터>가 인터넷상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양자 모두 그 규모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의학정보센터>로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 다시 생각해 보았다. 정부의 무지 탓인지 혹은 관련 학계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의학도서관협의회회의의 무기력 탓인지! 전문 직업군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의학계 사람들이 의학정보의 유통체계 구축에 관심이 없다니.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보건복지정보화' 추진 계획을 보아도, 보건복지 행정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정보화], [보건산업정보화], [보건의료정보화], [사회보험정보화]를 위한 4대 정보시스템의 구축 계획안은 있지만, <의학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계획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sup>2)</sup>

환경 특히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가차원의 정보유통기관 (도서관 혹은 정보센터)이 구축되어 있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가령, IMF시대를 맞은 작금의 상황은 적절한 예가 된다. 금년 초에 이미 일부 분야의 경우 단위 도서관 내지는 정보자료실 사이의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과학기술분야를 예로 들자면, 지난 2월 이미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와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가 주체가 되어 "과학기술정보자료 (특히 외국학술저널)의 공동활용 방안"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KAIST의 Science Library와 KORDIC이 주체가 되어 단위 도서관 차원에서의 외국학술지의 중복구독을 최대한 억제하되, KORDIC의 KRISTAL system을 활용하여 상호대차를 통한 공동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원공유를 위한 도구로서 KORDIC의 KRISTAL system이 존재하고 원자료의 clearing house로서의 역할을 KAIST의 Science library가 실질적으로 수행해

1) 국립중앙도서관 외. 국가전자도서관구축기본계획. 1997.  
 2) <http://www.mohw.go.kr>에 수록된 정책자료 중 "98 보건복지 정보화추진 시행계획" 참조.

오던 상황에서, 관련 협의회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가민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학도서관계가 의학정보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위 도서관 차원에서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그룹이나 협회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이에 글에서는, 단순히 IMF라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 논리로서가 아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의학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유통을 위한 방안을 단위 도서관의 차원에서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 2. 정보시스템으로서 의학도서관의 정체성

1998년 6월 현재의 상황에서 의학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사회 환경에서 의학도서관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즉, <의학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현재의 조직구조, 장서형태, 서비스방식, 그리고 전문인력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시스템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해지며, 나아가,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이 현실성을 띠게되기 때문이다. <정체성>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논점이 제시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다음 세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자.

① **기관성격:** 의학도서관은 사전적 정의에서 강의(teaching), 연구(research) 그리고 환자에 대한 간호(patient care)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뭉기관의 성격이나 이용자그룹의 성격에 따라 대학도서관(의대도서관)의 성격과 전문도서관(병원도서관이나 기관자료실의 형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관의 주 목적은 의학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도서관>으로 보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따라서 뭉기관이 연구개발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있는지에 따라 부속기관인 의학도서관은 그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ALA, 1993).

② **정보자료:** 의학분야의 정보자료가 갖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관련 영역의 광대함으로 인해 정보가

료가 도처에 분산되어 있다; 대체로 자료의 수명이 짧고 신속성과 최신성이 자료로서의 가치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단계에서 가장 주요한 자료의 형태는 인쇄본 형태의 저널기사와 저널 기사에 대한 메타 데이터베이스(MEDLINE)이다; 제1세계권에서 생산되는 정보자료가 전체 유통량의 85% 이상을 점유한다(따라서, 제3세계권의 제1세계권에 대한 정보의존도가 매우 높다)(Gorman, 1995).

③ **이용자그룹:** 뭉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용자그룹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환자나 일반인 그리고 행정사무직을 제외하고 의학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경우, 정보요구에 있어 점차 ‘유용성(utility)’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즉, 단순한 문헌정보보다는 동향정보에 대한 요구가, meta data보다는 substantial data에 대한 요구가, 그리고 uni-media의 형태에 정보보다는 multi-media 형태의 정보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Gorman, 1995; Leckie et al, 1996).

이 글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특성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의학도서관이 <지식의 유통>과 <정보의 유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 중에서 어느 쪽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할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특히 도서관을 비롯한 정보시스템의 내외적 환경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의학도서관의 미래는 물론 사서라는 전문직업군의 미래와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3. 도서관에 닥쳐오고 있는 ‘환경변화’의 실체

### 1) 거시적 관점에서의 환경변화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정보사회로의 사회적 전이를 진행 중에 있음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나는 1998년 6월 현재 우리 사회는 정보사회로의 사회적 전이를 급속도로 진행 중에 있다고 믿는다. 이 사회적 전이는 워낙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영향력이 커서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구조와 형태 그리고 가치관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급격한 사회 변화 과정에서 도서관과 도서관인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보사회란 어떠한 사회인가? 정보사회를 보는 관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나, <후기산업사회>로의 사회적 전이를 포괄적으로 논의한 Daniel Bell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주장은 기술결정론의 시각이 농후하지만)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 구조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보사회의 특성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제의 축은 상품생산으로부터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한다; ② 직업적으로는 전문직과 기술직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다; ③ 고용구조에서는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증가한다; ④ 조직체계에 있어서는 분산체계(distributed system)의 보급이 확대된다; ⑤ 과학적 지식(theoretical knowledge), 즉, 추상성보다는 합리성에 근거를 둔 지식이 사회의 주요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⑥ 정보기술이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증대한다 등 (Bell, 1973).

미래학자들은 과학적 지식과 지적 기술에 기반한 사회에서는 웬만한 수준의 전문 지식은 기계적 코드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으로서, 전문가시스템의 등장은 전문직의 '전문성 보장'에 있어 가장 주요한 의사결정기능, 즉, 진단 및 처방(prescription) 기능을 점차 무력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을 갖춘 첨단정보기술은 전문인의 '전문성 보장'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 결과로, 대표적 전문직중의 하나인 의학분야도 앞으로는 최신 의학정보에 대한 '수집능력'이 의료인의 실력을 좌우할 것이며 동시에 의료행위의 품질평가에 있어 '서비스정신'이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 있어서 고용구조와 사회계급의 재편은 도서관과 도서관 인력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미래학자중에서 특히 사회학자들은 정보사회에서의 중심적 직업군은 정보전문인(information profession)이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정의는 우리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상상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정보기술의 제작자와 통제자들이 meta profession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meta profession은 단순한 정

보게이트키퍼가 아닌 지식공학자(knowledge engineers)나 정보의사(information doctors)로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Harris & Hannah, 1994).

이처럼, 정보사회로의 사회적 전이 과정에서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사이의 갈등(system disturbance)은 필연적이며, '정보전문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장악을 위한 다툼 또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중심적 직업군에 대한 정의는 내릴 수 있지만, 현사회체계에서 누가 혹은 어떤 직업군이 혹은 어느 학문영역이 정보전문인이라는 미래 사회의 중심적 직업군을 대변하게 될지는 아직 그 누구도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 논의의 과정에서 현재의 도서관이라는 사회기관과 사서라는 직업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장악을 위한 다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 특히, 정보기술의 운용 및 관리능력의 함양은 이 체계모니 장악을 위한 다툼에 있어서 필수적 무기가 될 것임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2) 미시적 관점에서의 환경변화

한편,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정보의 양적 팽창과 가격 상승, 정보유통매체의 변화 (즉, digitalization), 그리고 정보수요자들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학문의 발전과 연구분야의 세분화로 인한 정보량의 급증은 익히 널리 인지되고 있는 현상이다.

의학정보의 경우 정보의 양적 팽창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의학정보의 80% 이상이 학술저널을 통해서 유통되기 때문에 의학분야에 있어 정보의 양적 증가는 당연히 학술잡지가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의학분야는 타분야에 비해 학술잡지에 수록된 기사단위의 서지통정을 위한 전산화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술저널의 原文에 대한 요구도 타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의학도서관계가 봉착한 문제는 인쇄본 형태로 출판되는 의학관련 학술저널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모든 의학도서관이 공통적으로 닦쳐있는 문제이나, 우리의 경우 IMF로 인해 단위 의학도서관의 실제 구매력이 급락하면서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 상

태이다.

미국과 같은 정보선진국의 경우는 물론이고 우리의 경우에도, 도서관 사이의 협조체제의 구축을 통한 정보자원 (특히, 저널류)의 공유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폭증하는 정보자료의 종수와 폭등하는 인쇄물(저널)의 가격으로 인해 전통적인 정보자원공유방법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보선진국에서부터 모색되기 시작한 '유통의 효율성에 근거한 매체의 선택'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분야에서 선도하고 있는 학술저널의 전자잡지화와 같은 정보자료의 디지털화는 이러한 노력의 백미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논리에서 비롯된 매체의 디지털화 현상은 우리 사회 전문분야에 걸쳐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정보수요자들의 의식과 행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가령, 정보추구행태에 있어 정보의 단순한 '관련성(relevance)'보다는 '유용성(utility)'이 정보시스템 선택에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나열된 문헌정보보다는 분석가공된 동향정보에 대한 요구가, 메타 데이터(meta data)보다는 실질적인 데이터(substantial data)에 대한 요구가, 그리고 uni-media 형태의 정보보다는 multi-media 형태의 정보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이는 사회문화적 논리에서도 매체의 디지털화 현상이 폭넓게 퍼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현상은 1998년 현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사회 도처에서 목도되고 있다.

#### 4. 환경변화에 의학도서관계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그 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의학정보의 효율적 공유방안을 모색해왔고, 특히, 자동화환경에서 의학정보네트워크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의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정보환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정보선진국의 사례에 근거하여 그들의

모델을 우리 상황에 이식해보고자 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특히,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사고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나는 지금은 오히려 의학도서관계가 의학도서관을 포함하는 의학정보시스템의 기능 확대를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예산절감을 위한 자료의 공동활용과 같은 소극적 대처 방안에만 대한 논의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의학정보시스템의 기능 확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로 본다. 정보사회의 전이라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IMF라는 경제적 논리에서도 나아가 정보수요자의 의식과 행태라는 문화적 논리에 근거하여 보아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보유통기관 혹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축소가 아닌 기능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긴축시대이지만 사회 제분야(연구개발분야를 포함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곳은 과감히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긴축논리만이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정보시대에 정보는 생산을 위한 주요한 생산재이다. 따라서, 생산재에 대한 투자를 감축하고서 생산성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다. 지금은 각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련 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을,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母校관의 의사결정권자 나아가 국가의 정책담당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논리의 당위성은 의학분야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재 MEDLINE에 수록되어 있는 3,700여종의 의학분야 주요 저널 중에 우리나라의 의학도서관에서 구독중인 저널의 종수는 절대 부족한 상태이다. 150여개에 달하는 의학도서관 중에서 1,000종 이상을 구독하는 경우는 3개 의과대학도서관과 1개의 병원도서관을 포함 모두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구독 저널의 절대 수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단위 도서관 차원에서 구독저널의 감축을 통한 예산절약방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물론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방안은 논의

를 계속해야겠지만), 정보시스템으로서의 의학도서관의 기능 확대와 이를 위한 시스템 개편 및 예산 증액에 대하여 논의해야할 시점인 것이다.

이 논리의 당위성은 또한 정보수요자의 정보추구 행태를 연구한 여러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즉, 이용자와 원 자료 사이에 심적·물리적 거리는 정보자료의 이용에 매우 중대한 결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즉, 원자료가 물리적으로 멀리 있을 때, 이용자는 그 자료를 이용하려는 의지가 약해진다는 이론이다. 이 말은 단위 의학도서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보자료 (특히, 학술저널)의 중복구입이 인듯 중복투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중복구입이 연구자들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동활용'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구독 자료를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만이 절대 능사가 아님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처럼, 지금은 오히려 의학정보시스템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며, 소장의 형태든 접근의 형태든 정보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의 양적·질적 증가가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단위 의학도서관 차원에서 자료의 구독중단을 통한 예산절감방안을 골몰히 생각하기보다는 기능의 확충을 위한 기구나 조직의 개편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보충을 위해 신규투자를 요청할 시점임을 관계자들은 확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의학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2) 그렇다면 의학도서관을 비롯한 의학정보시스템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지금과 같은 경제난 시대에 '의학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논리에 근거한 새로운 개념의 의학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 새로운 의학정보시스템의 구축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하며, 그 형태는 디지털매체 중심적이어야 하고, 그 구조는 철저한 분산체제에 기반하여야 하며, 주요 과제는 국내생산 정보자료의 쉐어 DB화에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하나씩 논의해 보자

① 먼저, '의학정보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의학정보시스템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공공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즉, <의학정보시스템>은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적 성격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결과, 제공되는 정보가 공공재의 형태를 띠고 고르게 분배되게 하여야 한다. 소위 <국립의학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에 의한 진단과 처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건립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나아가, 의학정보네트워크의 구축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1998년 6월 현재 나의 부족한 지식에 기반할 때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기된 '처방'을 구현하고자 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추진중인 국내생산 연구물의 목록 DB 구축사업 정도를 제외하곤).

이 점과 관련하여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의학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의학도서관협의회 차원이 아닌 의학분야의 주요 학회나 협회와 같은 뭉기관의 차원에서 나아가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기관의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정보유통체제의 한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국가의학정보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KINITI, KRIC, KORDIC 등과 같은 반열에서 국가정보유통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멤버로서 '의학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가정 KOMEDIC (KORea MEDical Information Center)은 국가 4대 정보시스템의 하나로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산업통상분야의 KINITI, 사회문화분야의 KRIC, 과학기술분야의 KORDIC, 그리고 보건의학분야의 KOMEDIC이라는 국가 정보유통체제의 기본 구조아래에서 국가차원의 의학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논의하여야 한다.

② 한편, 나는 새로운 <의학정보시스템>의 형태는 인쇄매체에 기반한 uni-media에 의존하기보다는 디지털매체에 기반한 multi-media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학도서관이 디지털매체 중심의 multi-media 정보시스템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야만 하는 이유를 나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나는 현재 의학도서관을 비롯한 우리 도서

관계의 위기는 태생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에 경제적 요인이 가중되면서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요인이 하루 아침에 반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정보유통의 효율성 제고라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sup>3)</sup> 지금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며, 따라서, 디지털매체를 활용하는 경제적 논리의 전개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둘째, 현재의 상호대차를 통한 정보공유 방법은 기존의 지역간 혹은 기관간의 정보불균형 현상이 완화되지 않고서는 더불어 전문성에 기반한 정보자원의 분산적 개발정책이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지니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지역간의 정보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인쇄매체 중심의 의학정보의 유통은 디지털매체 중심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디지털매체에 기반한 단위 의학정보시스템을 다수 구축하고 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거대한 의학정보망을 구성하여, 의학정보를 장소나 기관에 구애없이 실시간에 공유하게 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정보공유도 가능해지고 만성적인 지역간 정보불균형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③ 다음으로 나는 새로운 <의학정보시스템>은 철저한 분산체계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의 분산체계는 주체의 분산과 기능의 분산을 동시에 의미한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는 하나의 중앙정보센터와 다수의 과별전문정보센터를 두는 2단계 구성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중앙정보센터(KOMEDIC) 아래에 내과전문정보센터(PRIC), 외과전문정보센터(SRIC) 등을 두는 방식이 바람직해보인다. 나는 미래의 정보시스템은 정보수요자의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정보시스템 (customized information system)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즉, 업무가 중복되는 다수의 정보시스템이 존재하더라도 각각의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서

3)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재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도서관의 현실성,” 도서관문화 39(3): 226-240을 참조 바람.

비스의 깊이(質)에 따라 정보수요자가 취사선택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정보수요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중앙정보센터는 KINITI나 KRIC과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과별전문정보센터의 경우는 기존의 단위 의학도서관들을 활용하는 방안(KORDIC의 방식)과 새로 설립하는 방안(KOSEF의 방식이나 학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후자인 학회를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즉, 중앙정보센터가 해당 학회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회별로 과별전문정보센터를 구축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하되, 전체적인 조정과 통제가 필요한 기능은 중앙정보센터에서 맡아서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앙정보센터와 과별전문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처음부터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표준화와 같은 조정과 통제가 필요한 기능은 중앙정보센터가 담당하되, 주제별 특성이 부각되는 기능(가령, 핵심 자료의 수집이나 전문 DB의 구축 및 서비스제공 등)은 과별전문정보센터에서 담당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앙정보센터는 다음의 5대 기능은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의학분야를 국내외에 대표하는 정보유통기관; 의학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조정·통제기관 (표준화 문제 등을 포함); 온라인 의학정보시스템 (hardware와 software를 포함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관; 의학정보의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기관; 의학진산망의 관리기관 등. 특히, 학제적인 특성을 가진 의학정보의 수집 및 DB 구축은 중앙정보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첨가되어야 한다.

④ 마지막으로 나는 <새로운 의학정보시스템>의 역할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국내생산 정보자료의 쉐어 DB화와 국내외 연구동향 정보의 체계적 공급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앙정보센터는 물론 과별전문정보센터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학술저널은 물론, 각종 연구동향, 회의나 세미나를 통한 연구발표 등을 다수의 IP(정보제공자)를 통하여 공급받아 독창적인 국내 의학정보를 체계적으로 공

급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기존에 다른 분야의 정보시스템들이 해왔던 실수, 즉, 소장하고 있는 해외자료 중심의 메타 DB나 쉐문 DB를 구축하는데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특히 국내생산 정보자료의 쉐문 DB화 작업은 새로운 <의학정보시스템>의 핵심과제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단위 의학도서관들이 구독하고 있는 저널의 대부분이 외국학술저널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이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 우리가 현재의 외국정보자원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탈피하려면, 우리의 의학정보시스템은 460여종을 상회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학관련 잡지들에 수록된 모든 기사를 쉐문 디지털화하여 국내 이용자뿐만 아니라 해외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현재의 일방적 정보중속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3) 한편, 현재의 단위 의학도서관들은 새로운 <의학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하여 의학지식의 유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학정보의 유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즉, 한편에서는 새로운 <의학정보시스템>에 대한 최종이용자의 접근을 지원하며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여 SDI 서비스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고 보다 수요자중심의 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의학관련 지식의 시공간적 유통을 위한 전통적 도서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글에서 제안한 <의학정보시스템>은 저널기사와 같은 신속성과 최신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보의 유통을 위해서는 중심적 구실을 하겠지만, 단행본 형태의 의학서적이거나 교양서적 또는 환자의 치료나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각종 자료까지를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의학관련 지식의 유통기관으로서 의학도서관 본연의 역할에도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될 때, 정보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의학정보와 의학지식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보다 용이해지지 않겠는가?

## 참 고 문 헌

- 1) 국가전자도서관구축기본계획. 1997. 서울: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 산업기술정보원, 연구개발정보센터, 첨단학술정보센터.
- 2) 이제환. 1996. "이용자의 관점에서 본 KRISTAL System 과 DB의 품질. Proceedings of the 1st KOSTI workshop. 대전: 정보과학회 & KORDIC. p. 240-262. & Sup. 1-4.
- 3) 이정선 외. 1996. "학술잡지 공유를 위한 의학도서관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학도서관 23(1): 11-38.
- 4) 이제환. 1998.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도서관의 현실성." 도서관문화 39(3): 226-240.
- 5)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3. "Medical libraries." In: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3rd ed. p.550-565.
- 6)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7) Drabenstott K. 1993. Analytical review of the library of the future. Washington, DC: Council on Library Resources.
- 8) Gorman P. 1995. "Information needs of physicia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6(10): 729-736.
- 9) Harris M, Hannah S. 1994. Into the future: The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Norwood, NJ: Ablex.
- 10) Leckie G, et al. 1996. "Modeling the information seeking of professionals: A general model derived from research on engineers,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lawyers." Library Quarterly 66(2): 161- 193.
- 11) McKibbin K. 1995. "The medical literature as a resource for health care practic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6(10): 737-742.